<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 Monthly Magazine Vol. 692 2025년 11월호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92

11

꿈과 기적을 만나는 순간

MIRACLE

THEME 1

기적

11월호의 키워드는 ‘Miracle’입니다.
여러분은 ‘Miracle’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첫 번째 테마는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 힘이 닿는 순간, 더욱 특별해지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THEME 2

꿈

두 번째 테마는 ‘꿈’입니다.
꿈은 내일을 향한 믿음이자,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물의 길을 열어갑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여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적







6. 월간 수토픽
바닷물로 만드는 기적
해수담수화

10. Gallery
우리가 기적을
만날 때

14. Theme Road
금빛 찬란한 곡창지대를
일군 기적을 만나다
김제

20. Travel Guide
기적을 담은 밤하늘
은하수 명소

22. Voice on Road
황금빛으로 무르익어 가는 나의 꿈
농부 차정환

26. The Kit
'행운'이라는
기적이 필요할 땐

28. Taste Note
깊은 풍미를 내는
한 꼬집의 기적

창간일 1968년 1월 | **발행일** 2025년 11월 1일 | **통권** 692호 |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꿈







30. Theme Prism
내가 꿈꾸는 Miracle

32. Opinion
꿈이 살아 움직이는
세상 만들기

34. Talk with
그림으로 이룬 세상을 향한 꿈
정은혜 작가

38. 수타벅스가 간다
수도권을 지키는 열정
수도권수도사업단

42. Water & Tech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46. Newsroom

50. Water Lounge
물과 빛이 숨 쉬는 동굴
충주 활옥동굴

54. Monthly Issue
호라이즌 유럽,
비상(飛上)하는 K-water

56. Water Tales
지혜를 끓이는 여인
케리드웬의 물약

58. #알고리즘

59. 이벤트 안내

60. 방울사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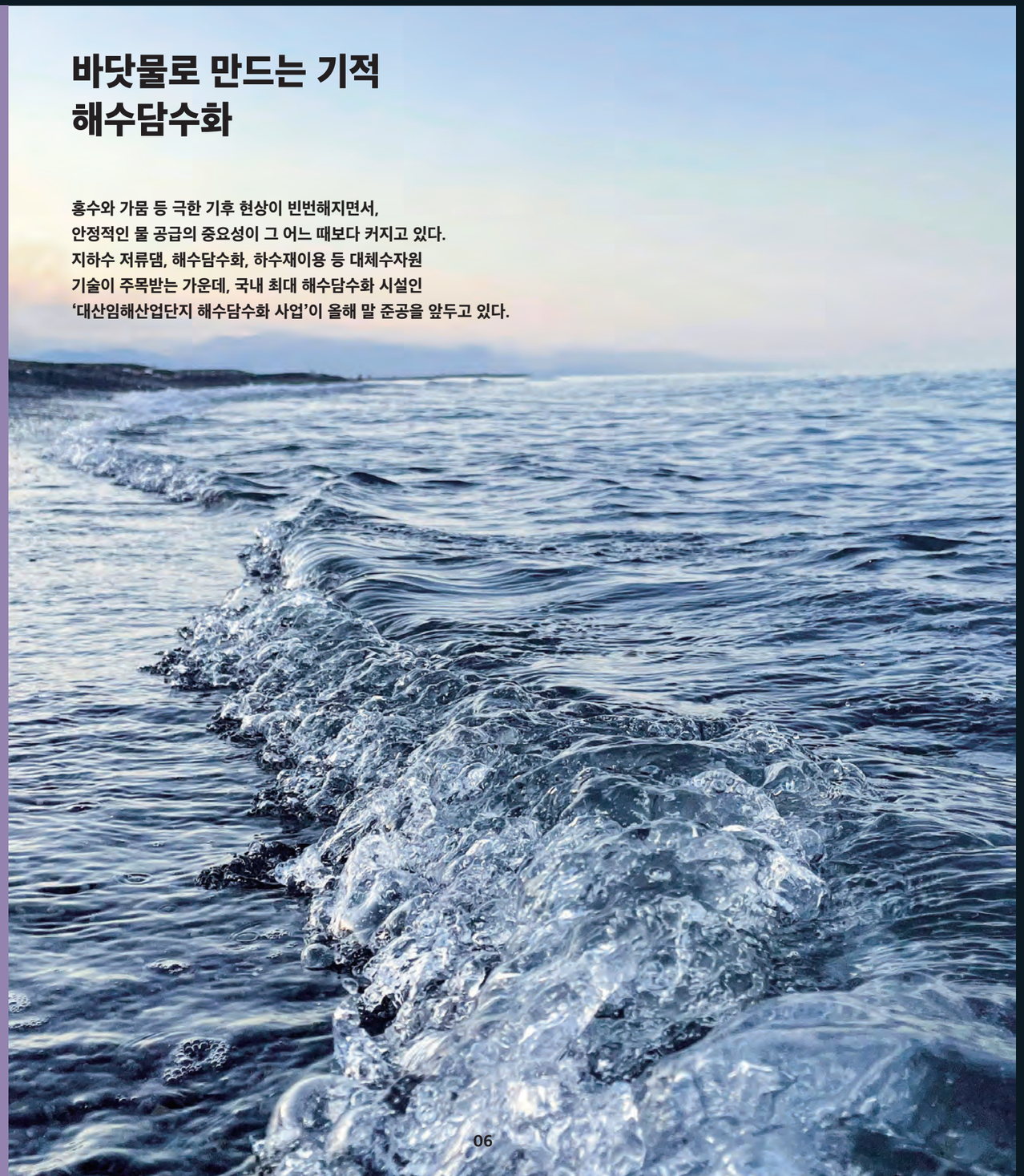
K-water SNS에서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웹진

글.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바닷물로 만드는 기적 해수담수화

**홍수와 가뭄 등 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안정적인 물 공급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지하수 저류댐,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 등 대체수자원
기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 최대 해수담수화 시설인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이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바다에서 찾은 물 부족의 해법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물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가뭄이 더 빈번하고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기존의 댐과 하천 중심의 용수공급 체계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수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물이 부족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해수담수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구 전체 물의 97%는 바닷물이다. 담수는 3% 정도이며, 이 중에서도 사람이 쓸 수 있는 물은 지구 전체 물의 약 0.3%에 지나지 않는다. 해수담수화 기술은 바닷물의 염분 등을 제거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담수로 만드는 기술이다. 사실상 수원이 무한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 변화에 따른 영향도 거의 없어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1세대 기술은 '증발식'이다. 해수를 끓이고 그 증기를 응축시켜 담수를 얻는 원리다. 하지만 물을 끓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됨에 따라 최근에는 '역삼투(Reverse Osmosis, RO) 분리막 방식'으로 공정이 전환되고 있다. 역삼투막 방식은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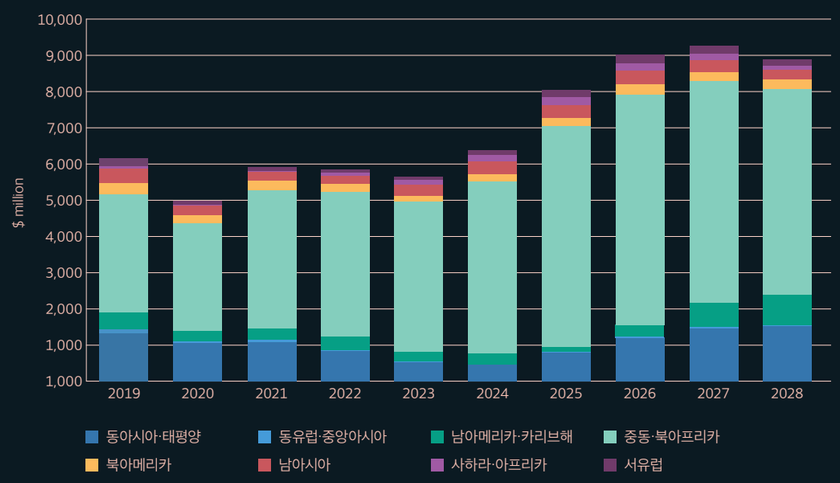
삼투압 차이만큼 물이 자연스레 이동하는 삼투현상을 반대로 활용한다. 해수에 삼투압보다 높은 압력을 가하면, 염분과 이온물질이 제거된 물만 반투막을 통과하여 깨끗한 담수를 얻을 수 있다. 역삼투막 방식은 증발식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고 경제성이 뛰어나 오늘날 전 세계 담수화 플랜트의 대부분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의 핵심기술, 해수담수화

국제 물 전문기관인 Global Water Intelligence(GWI)가 발간하는 담수화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5년 시장규모는 826억 달러(5년간 연평균 약 165억 달러), 2026년~2028년 시장규모는 711억 달러(3년간 연평균 약 23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5.6%의 급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가파른 담수화 시장의 성장세는 인구 증가, 산업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

지역별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시장규모

출처: GWI DesalData





한 내륙 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짐에 따라 해수담수화 기술이 지속 가능한 물 공급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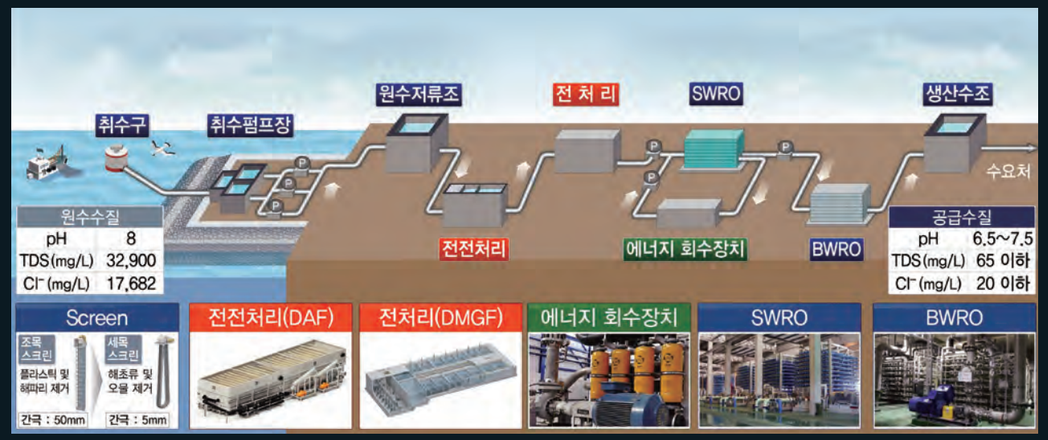
이러한 글로벌 해수담수화 시장의 빠른 성장세와 달리, 국내 해수담수화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국내 해수담수화 시설의 대부분은 100㎥/일 이하의 소규모 플랜트로, 주로 도서 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이다. 1,000㎥/일 이상의 중·대규모 시설은 광양 포스코(30,000㎥/일), 부산 기장군(45,000㎥/일), 서산 대산임해산업단지 총 3개소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올 연말 준공을 앞둔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시설은 국내 최대규모이자, 국내 최초의 상용 해수담수화 시설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서 최신 건설공법과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을 통해 K-water의 기술력과 시공관리 역량을 집약한 대표현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충남서부권의 오랜 갈증을 해소할 국내 최대 해수담수화 사업

대산임해산업단지는 울산,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산업단지 내 생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충남 서부권의 8개 시군은 대부분 보령댐에 수원을 의존하고 있으며, 대체 취수원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려 왔다. 또한, 대산임해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자체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당진 대호지는 반복되는 가뭄으로 안정적인 취수가 어렵고, 농업용 저수지로서 수위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공업용수로의 공급이 제한된다. 인근의 삽교호나 아산호는 취수할 수 있는 여유 물량이 없다.

이에 따라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 일원에 하루 10만㎥ 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이 사업에는 총 3,175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취수시설 1개소, 도수·송수·방류관로 24.9㎞ 건설 등이 포함된다. 하루 22만 4,000㎥의 바닷물을 취수하여 플랜트에서 정화한 10만㎥ 규모의 담수를 대산임해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기업들은 이를 통해 생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에 배분되던 용수가 지역 생활용수 등으로 재배분됨에 따라 충남 서부권 지역 전반의 물 공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산임해해수담수화 공정처리도





대산임해해수담수화 플랜트 조감도

해수담수화 기술 고도화로 국가 물안보 강화와 물산업 성장 지원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은 산업 성장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다. 해수담수화는 고갈되지 않는 수원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대안이자, 국가 물 안보를 뒷받침할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수담수화 기술은 다른 수처리 공정보다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에너지 저감, 친환경 공정 기술 등 연구개발을 통해 담수화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성을 높이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선 수원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수원다변화는 해수에 호소수나 하·폐수, 방류수 등 염분 농도가 낮은 원수를 혼합해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유입 원수로 사용함으로써 염분농도를 낮춰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원수를 혼합 활용 시 역삼투 막오염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농축수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자원으로 재이용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담수화 공정에서 생성되는 농축수는 높은 염분과 각종 이온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고농도의 농축수를 전해액으로 사용하면 저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마그네슘과 리튬 등의 고부가가치 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생산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담수화 플랜트의 취수공정 주입 약품(시판 차염)으로 대체 사용하면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온배수 재이용, 공정운영 최적화 기술 개발 등 관련 혁신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 그리고 기존 담수 자원의 한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 관리 정책과 첨단 수자원 기술의 결합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핵심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대체수자원 기술인 해수담수화의 기술고도화와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의 성공적 운영은 앞으로 국내 물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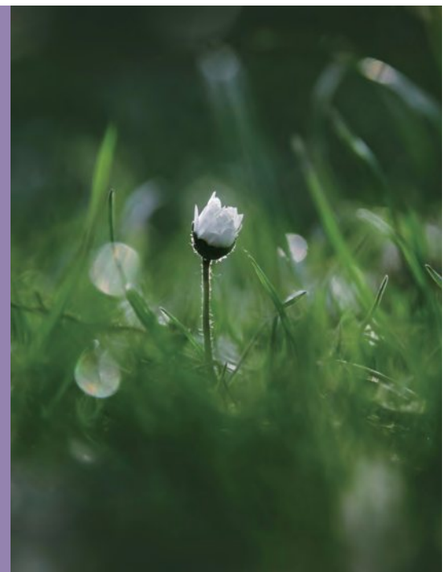
우리가 기적을 만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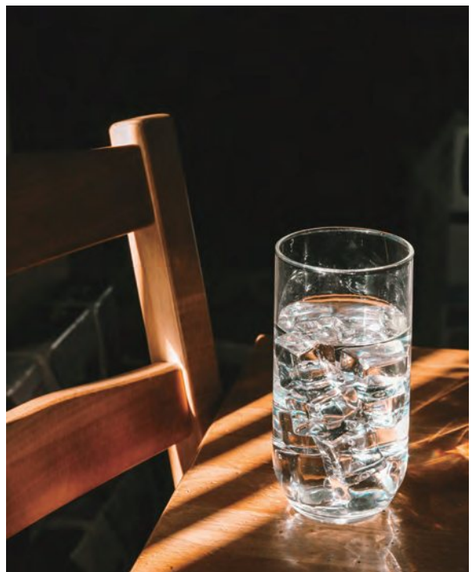
똑,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새싹을 틔울 때,
우리는 작은 기적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너무 미약해서, 혹은 너무 당연해서
지나친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른 땅을 적시는 빗물,
갈증을 달랠 물 한 모금,
비 온 뒤 하늘에 걸린 무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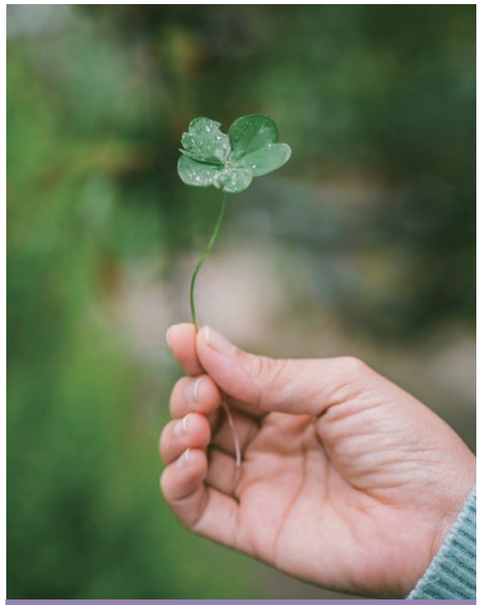




MIRACLE



Miracles All Around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또한
간절히 바라던 꿈이고,
세상이 건네는 기적이겠죠.
이 사소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삶이 얼마나 찬란한지 말이죠.

어쩌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에겐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글. 사진. 임운석 여행작가

김제 들녘이 금빛으로 물들었다. 멀리서 보면 하늘과 땅이 맞닿은 듯,
끝없는 지평선이 펼쳐진다. 이곳은 예부터 '곡창지대'라 불려온 땅이다.
벽골제의 물길로 들을 적셨고, 그 위에서 사람들은 일하고 노래하며 살았다.
때론 부패한 권력에 맞서고, 일제의 수탈에 눈물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섰다.
지금 김제 여행을 떠난다는 건 금빛 찬란한 곡창지대의 기적을 마주하는 것인
동시에 그 땅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금빛 찬란한 곡창지대를

일군 기적을 만나다

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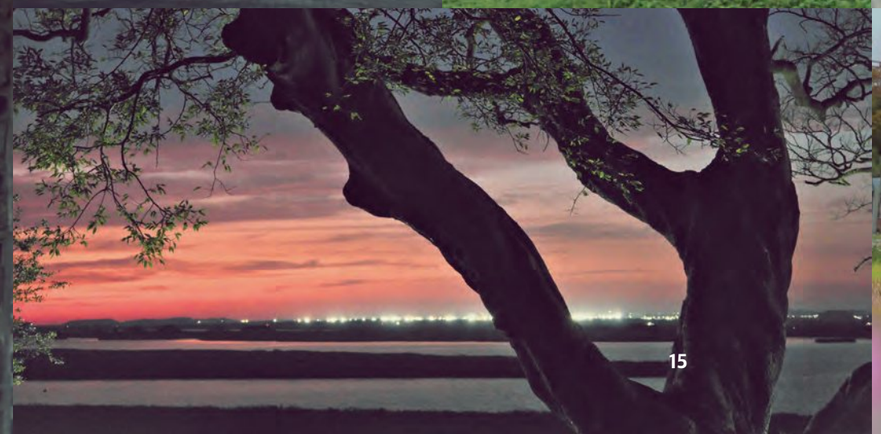
















만경낙조전망대

만경낙조전망대

A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만경읍 토정길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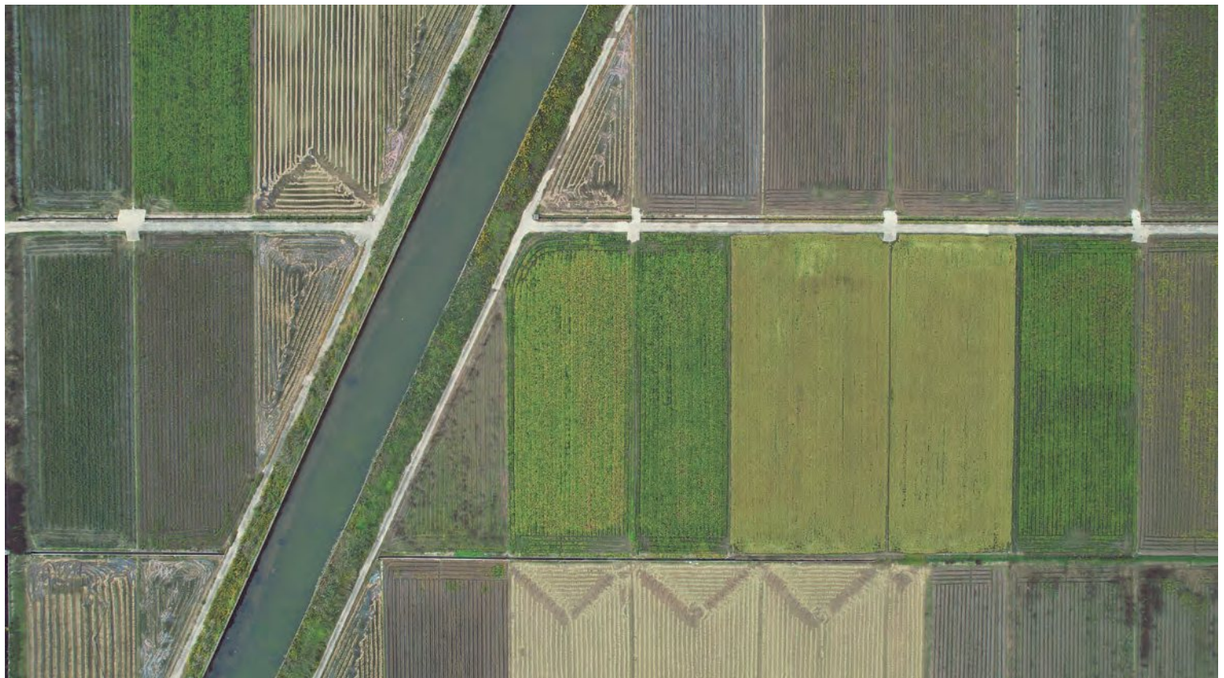
생명을 가꾸는 기적의 땅, 김제

"초록빛으로 넘치는 들녘 끝은 아슴하게 멀었다. 그 넓은 들은 한낮의 생기를 잃고 야릇한 적요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조정래 작가가 쓴 소설 『아리랑』의 첫 문장처럼 김제는 우리나라 어디서도 보기 드문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끝없이 펼쳐진 김제와 만경평야는 봄이면 논물 위로 하늘이 비치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끝없이 이어진다. 이 풍요로운 풍경 뒤에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벽골제가 있다. 지금도 일부 제방과 수문이 남아 있어 당시 고도로 발달했던 토목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1925년 '동진토지개량조합'에서 이 둑을 농사짓는데 필요한 물을 대는 통로로 고쳐 이용하면서 원래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

현재 벽골제에는 수문과 벽골제 중수비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먼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과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에서는 농경의 역사와 가치는 물론이고 수리시설의 원리, 옛 농기구, 벼농사 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쌍룡 조형물은 벽골제를 대표하는 포토존이다. 이 조형물은 벽골제를 지키던 용에 얽힌 전설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벽골제에서 도로를 건너면 아리랑문학관이다.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40여 년의 시간 동안 수탈을 피해 전 세계로 흩어졌던 민초의 수난과 항전을 그려낸 대하소설이다. 문학관에 발을 들이면 조정래 작가의 육성이 들려온다. "징게맹갱 외에밋들(김제 만경 너른 들)은 대대로 우리 민족의 쌀 창고로써 그 풍요로움 때문에 일제의 철저한 수탈 대상이 되었으며, 역설적으로 그 시기를 증언하는 소설 『아리랑』의 주 무대가 되었다."라고 담담하게 전한다. 문학관에는 작가의 육필 원고와 취재자료 등이 전시돼 있다.

평야를 벗어나 만경낙조전망대에 오르면 풍경이 사뭇 변한다. 들판의 노란 이삭도,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도, 그리고 저 멀리 지평선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인근의 망해사는 '바다를 바라본다'는 이름처럼 서해의 낙조를 품은 작은 절이다. 대웅전 마당에서 바라보는 고즈넉한 붉은 석양은 쌀쌀한 날씨임에도 따뜻하다. 특히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앉으면, 농사짓던 손을 잠시 멈춘 채 하늘을 올려다보던 농부의 여유를 떠올리게 된다. 만경강의 끝자락에 있는 심포항은 예부터 어선이 드나들던 김제의 작은 포구로 바다 내음이 물씬하다. 싱싱한 어패류를 정성껏 차려내는 식당들이 여럿 있어 식도락 여행객들의 입맛을 유혹한다.







벽골제

A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로 442

아리랑문학관

A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량면 용성1길 24









금산사

A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금산교회

A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 407

수류성당

A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수류로 643

원평집강소

A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봉황로 5

아리랑문학마을

A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화초로 180

심포항

A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6길 172

망해사

A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10길 94

삶의 터전 김제, 일상의 기적을 쓰다

김제의 삶터는 들판과 다른 속도로 흐른다. 농사로 얻은 수확이 삶을 지탱했지만, 사람들은 신앙과 공동체 속에서 일상의 균열을 메우고,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며 권력에 저항했다. 모악산 자락의 금산사가 그 중심에 있다.

금산사는 백제 법왕(599)때 창건된 천년고찰이다. 고려 문종 연간에 전성기를 맞아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오다 동학과 의병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미륵전의 미륵불은 높이가 무려 11m에 달한다. 엄혹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이 거대한 불상에 담겨 있는 것 같다. 사찰의 고즈넉한 오솔길, 미륵전과 단풍이 어우러지는 가을 풍경을 걷고 즐기려는 사람들로 주말엔 분주하다. 경내에는 국보와 보물 등 많은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금산사 근처에는 독특한 건축미를 간직한 예배당이 있다. 1908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데이트(한국명 최이덕) 목사 부부가 설립한 금산교회다. 당시 유교적 관습에 따라 남녀가 한자리에 앉을 수 없었기에 예배당을 'ㄱ'자 형태로 지었다. 이 독특한 구조와 함께 초기 신앙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금산교회와 달리 서양 고딕식 양식이 멋진 수류성당도 인근에 있다. 성당 앞에 있는 녹슨 종은 살짝만 두드려도 깊고 은은하게 울리며 마음에 스민다.

김제의 삶의 터전 가운데 억눌린 백성들의 분노가 터져 나온 곳, 원평집강소가 있다. 백정 출신인 동록개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대접주 김덕명 장군에게 '신분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며 헌납했다고 한다. 마당 한편에 서 있는 장승에 '동록개의 꿈'이라 적혔다. 잔뜩 찌푸린 인상에서 신분에 억눌린 처절한 고뇌가 느껴진다. 현재 건물은 복원된 것이다.

이후 발걸음이 닿은 곳은 아리랑문학마을이다. 소설『아리랑』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죽산면에 조성돼 있어 소설이 현실처럼 느껴진다. 아리랑문학마을은 홍보관을 중심으로 하얼빈역, 내촌과 외리마을, 근대 수탈 기관으로 나뉜다. 홍보관은 소설을 입체적으로 꾸며놓아 소설을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내촌과 외리마을에는 소설 속 인물인 손판석, 지삼출, 감골댁, 송수익 등의 가옥을 재현해 놓았다. 초가에 야트막한 담장을 에두른 집들이라 민속촌에 온 듯하지만, 집마다 세워놓은 안내문을 살피다 보면 처참했던 당시 상황이 그려져 한탄스러운 감정이 썰물처럼 밀려온다. 근대 수탈 기관에서는 애걸복걸하는 사람과 그것을 무시한 채 가혹한 폭언을 쏟아내는 목소리가 극과 극을 달린다. 마지막 하얼빈역은 실제 역사를 60% 축소해 지었다고 한다. 증기기관차를 배경으로 저격하는 안중근 의사와 총탄에 맞아 쓰러진 이토 히로부미의 모습이 생생하다.

황금 들녘에서 시작된 김제 여행은 아리랑문학마을을, 핏빛으로 물든 만경낙조전망대와 망해사를 거쳐 어둠이 내려앉은 심포항에서 막을 내린다. 금빛 물결이 만경강에 흘러들면 길이가 33.9km에 달하는 새만금방조제를 마주한다. '바다의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새만금방조제는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다. 예부터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합쳐 금만평야라 불렀다. '금만'을 '만금'으로 뒤집고 '새'자를 붙여 '새만금'이 됐다. 금빛으로 빛나는 새로운 기적을 기대해볼 만하다. 평범하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일상의 기적을 기대하며 금빛으로 물든 태양과 일렁이는 들녘이 있는 김제로 떠나보면 어떨까?

글. 편집실

기적을 담은 밤하늘

**도심지의 가로등과 건물 불빛 등으로 인해 별 볼 일이 힘들어진 요즘.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기적 같은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
별빛이 쏟아지는 은하수 명소를 소개한다.**



강릉 안반데기

강릉 안반데기에 밤이 오면 드넓은 채소밭이 어둠에 가려지고, 하늘에 꽃이 핀다. 해발 1,100m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안반데기는 공기가 맑고 빛 공해가 적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은하수 성지 중 하나다. 불빛 하나 없는 밤 한가운데에서 숨을 죽이고 있으면 자연의 고요가 먼저 찾아온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면 영롱한 별의 무리들이 반짝이며 탄성을 자아낸다. 홀로 우뚝 솟은 풍력발전기 또한 압도적이다. 드넓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힘겹게 올랐던 노력이 단번에 씻기는 풍경이다. 도심에서는 아무리 집중해도 보이지 않던 별똥별 또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고 하니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강릉 안반데기로 향해 보자.

A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길 428

평창 육백마지기

강원도 정선군과 평창군에 걸쳐 있는 해발 1,256m 청옥산 정상 부근에 '육백마지기'라는 너른 평원이 있다. 축구장 여섯 개를 합쳐 놓은 것과 맞먹는 규모의 육백마지기는 탁 트인 전망 덕분에 밤하늘을 올려다보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다. 특히 샤스타데이지가 만개하는 시기(6~9월)에 방문하면 별빛에 반사된 흰 꽃들이 땅 위의 은하수처럼 출렁인다. 다만, 은하수 명당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 장관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달이 밝은 날에는 오히려 별이 보이지 않는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선명해지기에 달빛이 없는 그믐밤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A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1-14

ⓒ평창군청





은 하 수

태안 운여해변

해가 수평선 너머로 모습을 감추려는 시간, 태안 운여해변은 온통 붉게 물든다. 떨어지는 낙조를 하염없이 바라보다 해가 완전히 넘어간 후에는 또 다른 낭만을 자아낸다. 아득한 밤하늘에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 별이 이내 하늘을 꽉 채우며 특별한 아름다움을 만들기 때문. 운여해변의 은하수 감상 포인트로 가기 위해서는 캠핑장 입구 길목에서 해변으로 좀 더 걸어 들어가면 된다. 이곳에는 소나무가 빼곡한 제방이 있는데, 밀물 때면 바닷물이 솔숲 안쪽까지 밀려 들어오면서 마치 호수처럼 반영을 만든다. 섬처럼 떠오른 솔숲과 하늘을 뒤덮은 찬란한 은하수가 데칼코마니처럼 비추어 온 세상을 별천지로 만든다.

A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장삼포로 535-57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_김영희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_이양수



명 소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우리나라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발사된 고흥에서는 밤하늘의 신비를 보다 더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에서는 최첨단 관측 장비를 통해 밤하늘의 모습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다. 특히 주관측실에 위치한 망원경은 주경 지름만 800mm에 달하는데, 이를 통해 태양계 행성은 물론 먼 우주의 성운과 성단, 은하를 볼 수 있고, 운이 좋으면 토성의 고리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 보조 관측실에서 여러 곳에 놓인 망원경을 따라 자리를 옮겨 가며 별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밤하늘의 별뿐만 아니라 낮에는 태양의 흑점을 관측할 수 있다. 날이 흐려도 아쉬워하지 말자. 천체 투영실에서 과거의 별자리, 지구 반대편의 하늘, 화성에서 보는 밤하늘 등을 재현한 3D 영상을 시청하며 미지의 공간인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기산선암길 353
H 10:00~22:00(매주 월요일 휴관)
T 061-830-6691

제천 덕주산성

덕주산성은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출사지로 유명하다. 그들의 렌즈가 향하는 곳은 어둠이 내려앉은 덕주산성의 밤하늘이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성곽 위로 흐르는 은하수는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곳의 매력은 육안보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더욱 선명히 느낄 수 있다. 특히 카메라를 장노출로 설정하면 산성을 중심으로 휘몰아치는 별의 궤적이 포착되는데, 마치 작품 속 한 장면처럼 신비롭다.

A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1-1

은하수 보기 전 체크하세요!

별 잘 보이는 곳이 궁금하다면
Light Pollution Map
전 세계 각 지역의 광공해 정도를 보여주는 사이트. 색이 붉은 곳일수록 광공해가 심하며, 검게 표시된 곳은 광공해가 없어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기 좋은 곳이다.

밤하늘에서 별자리를 찾고 싶다면
Stellarium
60만 개 이상의 천체 데이터를 제공하는 앱으로, 현재 내가 있는 위치와 시간에 맞춘 밤하늘 정보를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관측 가능한 별자리와 천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농작물은 농부의 한 해
땀방울과 발걸음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농부는 일 년을 내내 논과 밭에서 산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건 '작물'만이 아니다.
드넓은 평야에 꿈을 심어 키우는 농부,
차정환 씨를 만났다.

농부 차정환

황금빛으로 무르익어 가는 나의 꿈





‘농사’라는 새로운 시작

김제시 봉남면 오동마을. 가을이 오면 이곳은 온통 금빛으로 넘실댄다. 들녘마다 고개 숙인 벼이삭이 바람결에 출렁이고, 밭에는 단단히 여문 콩, 고구마, 감자 등이 줄지어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농부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논과 밭을 채운다.

일 년 중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차정환 씨는 올해로 5년 차 농부로, 이제는 이런 농번기의 분주함이 조금은 익숙하다. 정환 씨가 농사일에 처음 뛰어들게 된 건 자의 반, 타의 반이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이 좋아 체육대학교로 진학을 준비하고 있던 중 손목과 인대에 부상이 생기면서 인생의 새로운 진로를 찾아야 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농사였다. “아버지께서 농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농업의 미래를 보셨던 거죠. 그 시기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시골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골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할머니가 계신 김제로 오게 되었어요.”

오래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농부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당장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 일 년에 6개의 자격증을 땄다. 농업학교에서 주최하는 경진대회에도 꼬박꼬박 출전하며 실력을 쌓았다. 그러나 농사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야 했다. “농지를 임대하는 것부터가 문제였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또, 농지를 임대하고 나면 농사 지을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트랙터 한 대 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농사를 크게 짓는 형님을 찾아갔어요. 농사일을 도와드릴 테니 기계를 빌려달라고 했죠. 그래서 일을 다 도운 뒤에 남는 시간에 제 농사를 조금씩 하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결실을 맺은 땀방울

첫해 수익은 고작 350만 원. 한 달로 따지면 3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이었다. 포기할 법도 했지만, 자신이 일군 논밭을 바라보면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딱 5년만 버텨보기로 했다. 400평 밭을 얻어 벼와 콩, 감자, 고구마, 감 등 힘이 닿는 대로 농사를 지었다. 새벽에는 손해평가사로 일하며 피해 농가를 찾아다녔고, 틈틈이 트랙터 작업이 필요한 곳에 나가 일당도 벌었다. 오후에는 운동 실력을 살려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필라테스 강사로 수업을 했다. “내 농사를 짓기 위한 자본금이 필요했으니까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정말 하루하루 앞만 보고 살았죠. 3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트랙터를 사게 됐어요.” 이후 농지를 공격적으로 늘려나갔다. 농사 규모가 커지면서 수익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5년만 버텨보자, 했던 다짐이 5년 차에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그는 작년부터 오랫동안 꿈꿔온 일을 시작했다. 바로 버섯 농사다. “사실 버섯 농사를 하려고 시골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미뤄뒀죠. 제가 농사 외에 여러 가지 일을 병행했던 이유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현재 그의 농장에서 기르는 작물은 세 가지다. 벼와 콩과 목이버섯. 작물의 종류를 줄이는 대신 품질 향상에 집중했다. 덕분에 지난 한 해 농사는 ‘풍년’이라 부를 만큼 성공적이었다. 이제 그는 이웃 선배들에게도 당당히 인정받는 농부가 됐다. 바쁠 때는 서로의 손길을 품앗이하며, 오늘도 자신의 꿈을 일구어가고 있다.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봤거든요. 저는 매순간 후회 없이 살려고 해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때 한번 해볼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야 하거든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여기까지만 할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다 됐다’ 싶을 때까지 해요. ‘적당히’는 최선이 아니에요. 그 차이는 스스로가 알죠.”

정환 씨의 말에 따르면 농사는 정직한 일이다. 한 만큼 돌아오고, 잘못되어도 남을 탓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아, 탓할 게 하나 있다. 날씨요!” 정환 씨가 황금빛 들녘을 바라보았다. 결국,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는 오늘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 자신만의 뚜렷한 꿈을 향해 걸어가는 청년의 발걸음은 당찼다.

‘최선’이 나의 비결

그는 매년 초,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년치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 올해 초에는 자신이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상품화하기로 결심했고, 10개월이 지난 지금, 그의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칩과 두유가 출시되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저는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든 이뤄요. 실패는 없어요. 플랜을 A부터 Z까지 세우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이유는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삐끗하더라도 좌절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제가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 있잖아요.” 정환 씨는 계획을 하나씩 이뤄가고 있으면서도 ‘성취감’이나 ‘희열’ 같은 단어에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너무 많기에, 기뻐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꿈을 향해 질주하는 그를 멈춰 세우는 유일한 존재는 ‘날씨’다. 지난 10월, 유난히 길었던 가을장마에 구획을 나눠 방재 계획을 세우는 등 온갖 대응책을 펼쳤지만, 쏟아지는 가을비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렇지만 아쉬움은 없다. “정말 별짓을 다 해봤는데, 자연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움은 없어요.



글. 편집실 그림. Rosy

‘행운’이라는 기적이 필요할 땐



나를 지켜주는 작은 부적

네잎클로버 키링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 키링이 유행이다. 가죽공예나 뜨개질로 만든 핸드메이드 키링부터 진짜 네잎클로버를 투명 아크릴 속에 봉인해 만든 키링 등 다양한 종류의 키링이 출시되고 있다. 달랑이는 작은 부적에 무심코 시선이 닿을 때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하는 괜한 설렘이 느껴진다.

가끔 모든 것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날이면, 괜히 ‘왜 이렇게 운이 없지?’라는 한탄을 하게 된다.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땐 작은 물건 하나가 뜻밖의 선물이 될 때가 있다.
일상 속 작은 부적처럼 나를 지켜줄 행운의 아이템을 소개한다.



액운은 거절합니다

명태도어벨

명태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고 집안에 복을 불러들이는 풍수지리 아이템이다. 주로 집들이, 개업 등의 중요한 순간에 선물로 쓰이기도 하는 이 ‘액막이’ 명태가 ‘운테리어(행운+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명태’ 하면 생각나는 투박한 모습 대신 다양한 소재와 컬러로 미감을 살린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공간 분위기에 맞춰 벽 장식이나 현관 장식으로 연출하기도 좋다. 특히 사람들이 오가는 인기척을 느낄 수 있도록 명주실에 도어벨을 달아 두면, 전통적인 의미와 실용성이 어우러진 현대적 행운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오늘 행운 지수를 알려줄게

NFC키링

오늘 하루 내 행운지수가 궁금하다면? 매일 오늘의 운세를 확인할 수 있는 신개념 키링들이 출시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NFC(근거리통신)를 태깅해 자신의 프로필만 입력하면 하루 한 번 운세를 보여준다. 핸드폰이나 가방에 걸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고 가벼워 들고 다니며 매일 활용하기에 좋으며, 앱 설치 없이 태그만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다. ‘아이디어가 샘솟는 날’, ‘고민이 해결되는 날’ 같은 운세 속 짧은 문장 하나하나에 하루의 기분과 자신감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만의 별

별똥별 스노우볼

유난히 고단한 하루에는 나만의 별똥별에 기대어 보자. 손바닥만 한 크기의 유리 돔 ‘별똥별 스노우볼’을 흔들면 마치 밤하늘을 수놓는 별똥별이 눈처럼 흩어진다. 차르르 떨어지는 별들이 손에 쥐어지는 기분도 든다.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빌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처럼, 마음이 헛헛할 때 기대 보면 고단했던 하루의 끝이 조금 특별해진다.

행운을 부르는 긍정적인 마인드셋

감사일기 쓰기

매일 저녁 감사한 일을 다섯 가지씩 적어 보자. ‘맛있는 커피 마신 것’처럼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나의 일상에 따뜻한 일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뇌는 긍정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강화한다. 때문에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으로 긍정회로를 강화할 수 있다.

하루 한 번 깊게 호흡하기

깊은 호흡은 불안을 완화하고 감정의 균형을 되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지배한다면 잠시 하던 것을 멈추고 눈을 감아 보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쉬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입이 아닌 코로 호흡해야 한다는 점. 일정한 박자와 리듬을 유지하며 호흡에 집중하면 금세 기분 전환이 된다.

스스로에게 친절해지기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진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에게 문제를 돌리고, 실패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비난부터 하곤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기돌봄’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뇌가 안정감을 느끼며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글. 조수빈

깊은 풍미를 내는 한 꼬집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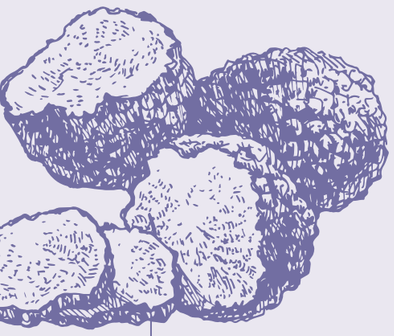
**화려한 색감, 그윽한 향기, 달콤한 맛 등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는 요리의 깊이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단 한 꼬집만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요리를 완성시키는 기적의 식재료를 소개한다.**



금보다 귀한 향신료
사프란

사프란은 붓꽃과 식물인 보라색 크로커스 꽃의 빨간 암술대를 건조시켜 만든 향신료이다. 꽃 한 송이에 단 세 개의 암술대만 있어 1g의 사프란을 얻기 위해서는 백 송이 이상의 꽃이 필요한 데다, 암술만을 따야 해서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세계에서 가장 귀한 향신료로 꼽힌다.

사프란은 음식과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기적의 식재료다. 먼저 사프란에는 '크로신'이라는 색소 성분이 있어 음식에 넣으면 황금빛으로 변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맛을 내기보다 음식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천연 착색제로 사랑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한 꼬집만 넣어도 음식의 향과 풍미가 놀랍게 깊어진다. 해산물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효과도 있어 파에야, 리소토, 생선요리 등에 자주 쓰인다. 또한 사프란의 '크로신'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숙면을 돕는다.



땅속의 다이아몬드
트러플

프랑스 3대 진미 중 하나인 트러플은 서양 송로버섯의 일종으로, 떡갈나무숲 깊은 땅속에서 자생한다. 30cm에서 깊게는 1m 아래에서 자라서 찾고, 채취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이 때문에 '땅속의 다이아몬드'라 불릴 만큼 귀한 식재료이다.

트러플은 향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버터처럼 진한 버섯 향과 흙냄새가 묘하게 어우러져 독특하면서도 농후한 풍미를 낸다. 그래서 처음 맛보면 낯설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 익숙해지면 자꾸 생각날 정도로 중독성이 있다. 트러플은 오래 가열하면 특유의 향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날것 그대로 요리에 활용하거나 오일, 꿀 같은 형태로 만들어 샐러드, 수프 등에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

미소를 부르는 향기
바닐라빈

아이스크림, 커피, 크림 등으로 익숙한 '바닐라'는 난초과 식물이며, 우리가 흔히 아는 달달한 맛과 향을 내는 건 바닐라의 열매 '바닐라빈'이다. 바닐라빈의 생산 과정은 매우 까다롭다. 바닐라는 첫 꽃이 피기까지 최대 3년이 걸린다. 게다가 꽃 피는 기간이 매우 짧고 수정을 할 때도 사람이 직접 손으로 꽃가루를 옮겨 주어야 한다. 이후 약 9개월을 기다려야 열매가 익고, 수확한 열매를 물에 데치고 발효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바닐라빈을 얻을 수 있다.

바닐라빈은 특유의 부드럽고 그윽한 향 덕분에 디저트, 음료, 향수까지 다양한 데에서 사랑받고 있다. 요즘에는 인공 바닐라 향료인 '바닐린'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천연 바닐라빈에서 우러나오는 향은 그보다 훨씬 섬세하고 풍부하다. 요리에 쓰일 땐 열매 껍질을 반으로 가르면 나오는 까만 알갱이만을 주로 사용하는데, 빈 껍질에도 향이 강하게 남아있어 우유와 함께 끓여 풍미를 내는 데 사용되곤 한다.



신이 주신 선물
카카오



초콜릿의 원료로 잘 알려진 카카오는 고대 아즈텍문명에서부터 신에게 바치는 재물로 쓰이거나 화폐로도 쓰일 만큼 귀한 식품으로 여겨져 '신들의 음식'이라 불려 왔다. 오늘날에도 카카오는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 등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 '슈퍼 푸드'로 통한다. 뿐만 아니라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은 단 한 조각으로도 사람의 기분을 바꾸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에는 스트레스 해소 성분인 아미노산의 일종, 트립토판이 들어있는데 이는 뇌에 행복을 전달하는 동시에 숙면을 돕는다. 작은 초콜릿 한 조각이 입에서 녹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이다. 카카오는 초콜릿이나 '코코아'라 불리는 카카오 분말을 먹는 것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는데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90~100%인 것을, 카카오 분말은 식물성 크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효과가 있다.

정리. 편집실

내가 꿈꾸는 *Miracle*

우리가 어릴 적 간절히 바라던 꿈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었다.
여기에 노력과 시간이라는 물을 주면 어느새 기적이라는 꽃이 핀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이루어 온 Miracle은 어떤 모습일까.

응답자 수 75명

'Miracle'과 가장 가까운 단어



44%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꿈



40%
생각지 못했던
기적



10.7%
오랜 노력 끝에 얻은
결실



4%
생명의 탄생, 오로라 등
경이로움



1.3%
기타
(내일 아침)

어린 시절, 내게 꿈 같던 순간을 만들어 준 것

33.3%
어린이날 또는 크리스마스 날의 선물 상자

25.3%
문구점 앞에서 뽑은 최애 카드

20%
밤하늘에서 발견한 별똥별

9.3%
부모님의 칭찬

12.1%
기타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샀던
간절히 원하던 MP3

금강유역협력단 이영훈

어린시절 제과점에서
처음 먹어 본 팥빙수

아산권지사 박종윤

일상 속 '이건 기적이야!'라고 느꼈던 순간

24%
시험 전날 벼락치기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24%
잃어버린 물건 또는 돈을 몇 년 만에 찾았을 때

17.3%
우중충하던 하늘이 여행 직전 맑아질 때

8%
아프던 몸이 거짓말 같이 개운해질 때

8%
길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을 때

18.7%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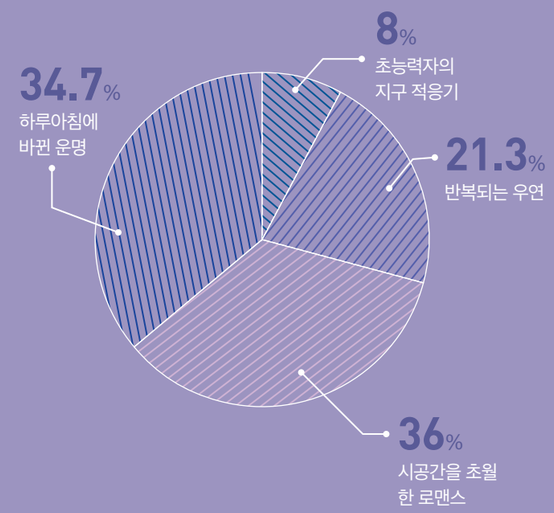
경기에서 큰 점수 차로 지고 있던
한화 이글스가 역전했을 때

**금강유역수도지원센터(처)
이경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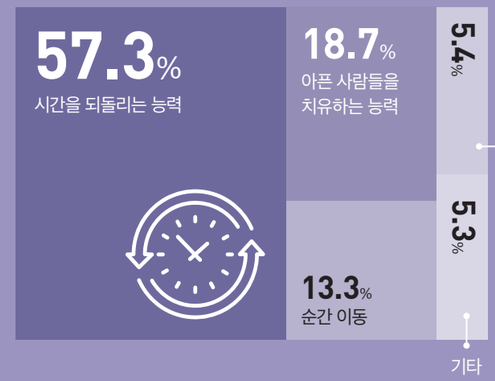
로또 3등에 두 번이나
당첨됐을 때

수자원운영처 이재용

드라마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적 클리셰'



내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갖고 싶은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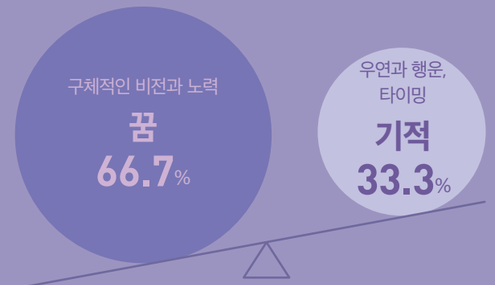
영주댐지사 김영득

봉화수도지사 안예진

어린 시절 나의 꿈

대통령 · 우주비행사 · 에버랜드 사육사 · 무술가 · 비행기 기장 · 하늘을 나는 사람 · 투명인간 · 형사 · 국어선생님 · 유전 발견하기 · 첫사랑과 결혼하기 · 아빠 같은 아빠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꿈을 꾸며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찾아오는 것

물에너지연구소 박재현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기적은
모두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영·섬유역협력단 이행진

꿈을 이룬 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48%
여행, 쇼핑 등 나를 위한 보상



20%
주변 사람들과의 축하 파티



27%
새로운 목표 설정



5%
기타(SNS 등을 통한 경험 공유 등)

글. 해도연 SF작가, 『진공 붕괴』 저자

꿈이 살아 움직이는 세상 만들기

상상은 자주 도망친다. 상상을 물고 오는 이야기의 뮤즈는 마치 속을 알 수 없는 고양이 같아서,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있을 때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다가,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가슴 위에 올라와 잠 못 들게 만들고는 한다. 게다가 상상은 언제나 휘발성이어서 흔적을 즉시 남기지 않으면 순식간에 증발한다. 그래서 내 메모 앱은 늘 짧게 끄적거린 파편으로 넘친다. 극적인 장면이나 대사, 한 줄짜리 결말, 그럴듯한 제목, 무슨 생각으로 쓴 건지 기억나지 않는 500자짜리 줄거리 따위. 그리고 그중 무엇이 실제 이야기로 태어날지는 나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 파편들을 메모장에 창고처럼 쌓아 둔다. 대부분은 오래 잠들어 있기만 한다. 메모를 쓸 때의 감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지만 가끔 메모를 훑어보다 보면 마치 깨워 달라는 것처럼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 처음 그 메모를 남겼을 때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감정이 싹트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감정을 동력으로 삼아, 메모 속 문장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

먼저, 그 문장을 차분히 다시 읽는다. 방향을 알 수 없을 때는 문장의 시선을 따라 주변을 바라보고, 몇 가지 배경을 곁들여주며 그 문장이 숨 쉴 공간부터 마련한다. 단어 하나, 배경 하나, 인물 하나가 차례로 붙으며 세계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낸다. 이때 내가 하는 일은 세계를 '짓는' 일이라기보다, 흩어지고 묻혀있던 세계의 뼈대를 찾고 재배치하는 일에 가깝다. 어디엔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맞춰진 적 없는 풍경의 퍼즐을 조심스럽게 맞춰나가는 것처럼.

다음은 질문할 차례다. 이 사람은 왜 이 선택을 했을까? 세계를 기울여 놓은 이 세계만의 원칙은 무엇일까? 그 원칙 속에서 가능-불가능-대가는 어떻게 나뉠까? 질문이 단서를 부르고, 단서가 구조를 만들고, 구조 위에 비로소 감정을 얹을 수 있다. 인물의 슬픔, 분노, 사랑, 두려움이 세계의 구조와 부딪히며 이야기가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한다.

속도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어떤 줄기는 며칠 만에 드러나지만, 또 어떤 이야기는 몇 달 몇 년씩 첫 문단 속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문득 피어난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는 그저 기다려 줄 수밖에 없다. 이야기 속 물리적 시간은 한 순간일지라도, 그 한 장면을 '깨닫기'까지 인물과 작가가 느끼는 시간은 하염없이 길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기다림이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 사이의 시간적 간극에 녹아들며 그 이야기만의 리듬과 호흡이 되기도 한다. 이야기의 호흡을 조절하는 건 결국 작가의 손끝이 아니라, 인물과 세계가 만들어내는 고유한 시간 감각이다. 그래서 가끔 이야기는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때로는 한참을 멈춰 서야 할 때도 있다. 이 세상 속 인물이 정말로 이런 선택을 할까? 이 인물이 정말 원하는 선택일까? 그저 내가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 앞에서 망설이는 시간은 이야기의 속도를 늦추기는 하지만, 이런 고민이야말로 이야기 속 세상의 변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준다. 그 원칙에 입각해서 나오는 결정. 원칙이라고 해도 대단한 건 아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포탈을 열어 외계행성 타이탄에서 스파이더맨을 지구로 다시 데려올 수 있었다면, 타노스를 블랙홀 주변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어야 하고, 핵폐기물 문제도 사라져야 한다 정도의 보편성일 뿐이다. 이 원칙은 상상력을 제한하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깊고 진실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뿌리가 된다. 나는 허구의 이야기일수록 원칙을 더욱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구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태도로 세계를 구축하면, 그 세계는 방도 문도 복도도 없이 외벽만 완성된 저택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누구도 그런 곳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상상이 구현되는 세계에서만큼은 현실보다 더 엄격한 진실을 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다루어야 한다. '상상 속 세계'라는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쓰다듬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칫 기분을 상하게 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도 하니까.

상상은 때로 무섭기도 하다. 차갑고 먼 우주를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사라져도 별과 행성은 아무렇지 않겠다는 사실이 너무 또렷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감정 끝에는 모순적인 따뜻함이 있다. 우리가 더없이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며 우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할 만큼 벅찬 고양감을 불러온다. 그래서 나는 종종 글이 기도문처럼 느껴지곤 한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될까?"라는 질문을 조용히 반복하는 기도. 우주의 대답은 결코 돌아오지 않지만, 묻는 행위 자체가 이야기 속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지나오고 나면, 마침내 하나의 이야기 끝에 도달한다. 이야기를 마친다는 것은, 그 인물들과 그저 작별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을 놓아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들이 내게서 떠나가 독립적인 세계로서 존재하며 독자들에게 닿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 그리고 나는 또다시, 다음 고양이가 새로운 상상을 물고 오기를 기다린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그림으로 이룬 세상을 향한 꿈

정은혜 작가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영희는 발달장애인이다.
그림을 그리는 실력이 아주 뛰어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다. 함께 대화를 할 때면 사랑스럽다.
이것은 영희를 연기한 정은혜 작가 본체의 모습과도 닮아있다.
그림을 통해 꿈을 열어가고 있는 정은혜 작가를 만났다.**



세상을 여는 창문, 그림

"영희에게 물었다. 너는 어쩌다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게 됐냐고. 영희가 말했다.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렇게 잘 그리게 됐다고."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속 영옥의 독백이다. 극 중 정은혜 작가는 한지민 배우가 연기한 영옥의 쌍둥이 언니이자, 그림 실력이 출중한 발달장애인 '영희'로 등장했다. 이 역할은 정 작가에게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다.

그림을 잘 그리는 건 맞지만, 정 작가에게 그림은 외로움의 산물이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다리였다. 만화가인 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정 작가는 언제나 그림이 가까이에 있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화실에서 일을 하던 정 작가가 한날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에게 잡지를 한 장 찢어 건네며 한 번 그려보라 했다. 그가 그린 그림에서 재능을 발견한 어머니는 놀랐다. 그렇게 정 작가는 화가로서 세상 밖에 나왔다.

경기도 양평 문호리 리버마켓. '니 얼굴'이라는 간판을 달고 앉아있던 그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 "여기 얼굴 그려줘요?" 하고 묻자, 정 작가는 이렇게 대답했다. "응! 니 얼굴!" 이 짧고 강렬한 한마디는 정 작가의 시그니처가 됐다. 정 작가가 그린 초상화만 해도 벌써 5,000여 점. 다시 말해 그가 캔버스를 앞에 두고 마주한 사람이 5,000명이 넘는다. 이를 시작으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는 재미를 알게 됐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다.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 정 작가의 팬도 많아졌다. 덕분에 세상과 연결되는 새로운 통로를 발견한 정 작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스며들고 있다.

희망을 꿈꾸게 하는 사람

'발달장애인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꿈 같은 질문이었다. 그러나 정 작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는 화가이자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의 대표인데, 아트센터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동료들을 위해서였다. 동료들을 향한 애틋한 정 작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 서동일 감독이 대신 설명했다. "지난해 은혜 씨가 포니정 영리더상을 수상했어요. 상금을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보니까 함께 작업하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에게 밥을 사겠대요. 도대체 몇 끼를 사겠다는 건지(웃음).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라면, 차라리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고 했죠." 그렇게 탄생한 아트센터에서 정 작가를 비롯해 14명의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며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곳은 작가들의 작업실이기 전에 이들의 일터이기도 하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오전 근무시간 동안에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며, 월급을 받고 있다. 퇴근 후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다. 즉, 이곳은 그들이 사회인으로서 사회와 연결되는 공간이자, 작가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인 셈이다.

그림 덕분에 정 작가는 사랑도 찾았다. 함께 활동하던 조영남 작가와 연애를 하다 지난 5월, 결혼식을 올리고 평생을 약속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건 평범한 일이다. 그러나 발달장

애인 정은혜 작가와 지적장애인 조영남 작가 부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가 함께한다면, 두 사람의 세상이 더 넓어질 것이라 확신했다. 두 사람의 행보는 그 자체로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부터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 구독자 30만 명을 자랑하는 유튜브 채널 <니얼굴_은혜씨>까지. 이제 그는 '유명인'으로서의 삶을 좀 알 것 같단다. "멀리서 작업실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인기가 좀 많거든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정은혜 작가와 그의 가족이 바라는 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일터로 출근해서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퇴근한 뒤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화를 한 편 보는 그런 삶. 그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른 장애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고. 비장애인에게도 말하고 싶단다. 장애인과 마주하는 것은 낯선 일이 전혀 아니라고. 결국, 정은혜 작가가 꿈꾸는 세상은 특별하지 않다.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고 사랑하고 웃을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는 오늘도 평범한 기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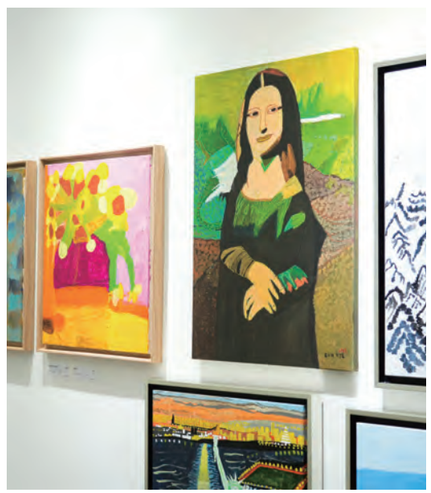
작가님께서 그린 그림을 처음 보고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다고요.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 딸이니까요(웃음). 그래서 '역시 나는 엄마 딸이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니 좋긴 했어요.

'니 얼굴' 시리즈로 5천 개가 넘는 작품을 그렸어요. 처음 사람 얼굴을 그렸던 때가 떠오르시나요?

양평 문호리 리버마켓에 캐리커처를 그리는 상점으로 참여를 했어요.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얼굴 그려줘요?"라고 하길래 "응, 니 얼굴!" 하면서 시작됐죠. 처음엔 여름이었어요. 무척 더웠죠.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매일 그림을 그리다 보니 어느새 겨울이 되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도, 칼바람에 손이 부르텄던 날에도 꾸준히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들이 제 그림에 관심을 가지며 다가오면 신나요. 제 그림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즐거워요. 지금도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해요. 제가 그린 그림으로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고, 기억하니까요.







그림을 보면 작가님만의 스타일이 확실해요. 어떤 시선으로 작품을 대하는지 궁금해요.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사람들이 "은혜 씨, 저 예쁘게 그려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제 눈엔 사람들의 얼굴은 다 예뻐요.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영희'로 연기를 했어요. 어떻게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셨나요.

서울에서 개인전을 할 때 노희경 작가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빠가 만든 다큐멘터리 <니 얼굴>이랑 제 유튜브 채널을 봤대요. 그때 작가님이랑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리고 드라마 섭외가 됐죠. 2020년에 제주도에서 영희로 연기를 했어요. 감독님이랑 여러 스태프들, 배우들 등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연기도 하고, 예쁜 옷도 많이 입었죠. 진짜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덕분에 팬도 정말 많아졌어요.

그림 그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매번 가던 리버마켓에 사람들이 줄을 선 날도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게 즐거워요.



여러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요?

조영남 오빠(남편)요. 동료 작가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빠를 처음 만났어요. 2024년 2월이었어요.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매일 출근하면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주는데 제가 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커피가 진짜 맛있기도 했어요.

지난 5월에 결혼을 했죠. 두려운 건 없었어요. 이제는 오빠가 없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요즘에도 오빠랑 꽁냥꽁냥 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작가님의 행보가 함께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을 해 주시나요?

그런 거 안 해요. 알아서 잘 하는데요 뭘. 말 대신 질투를 하죠(웃음).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연말에 서울에서 <은혜로운 명화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전을 할 계획이에요. 전시회를 앞두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수타벅스가 간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영상. 이덕재



수도권을 지키는 열정 수도권수도사업단

수도권수도사업단에는 수도권의 안전한 물공급을 향한 열정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도심과 원거리 현장이 공존하는 까다로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수도권의 물길을 지켜가는 수도권수도사업단으로 수타벅스가 출발했다.



어려운 리스크도 함께라면 문제없다

수도권 전역에 걸쳐 수도관로 및 정수장 등 물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수도사업단.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도심과 동두천, 의정부, 파주, 평택 등 원거리 건설 현장을 아우르고 있어 사업관리와 안전관리의 난이도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수도사업단은 '수도 사관학교'로 불린다. "인구가 많은 만큼 이해관계자도 많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 진행의 난이도가 높지만, 여러 현장을 오가면서도 열정과 에너지를 잃지 않는 직원들 덕분에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음정수 차장은 이같이 말하며 사업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1994년 개소하여 지난해 30주년을 맞은 수도권수도사업단은 올해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 공급망 강화, 급수체계 조정 사업을 비롯해 2026년에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사회 전반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한 다양한 안전활동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유지해가고 있다.

이같이 까다로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서로를 응원하며 현장을 지켜가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음정수 차장과 김채순 과장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직원들이 가장 기다리는 선물, '수타벅스' 이벤트다.







뜻밖의 선물에 행복이 두 배!

두 사람은 수타벅스 신청을 하면서도 내심 '우리 사업단이 선정되겠어?' 하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다. "수도권에 있다 보니 선정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심보다는 오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우선 찾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업단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덕분에 올 한해 열심히 달려온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라며 김채순 과장이 밝은 미소로 소감을 전했다.

수타벅스가 문을 여는 시각. 근무하던 직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텀블러를 챙겨 들고 수타벅스 앞으로 모여들었다. 본격적인 커피 타임에 앞서 인증샷은 필수! 커피차 앞에 나란히 선 직원들은 셔터 소리 사이로 웃음과 환호를 터뜨리며 그동안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았다.

가을바람이 불며 기온이 뚝 떨어진 요즘, 가장 생각나는 건 따뜻한 차 한 잔. 그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향긋한 커피와 함께 커피번이 오늘의 간식으로 준비됐다. 허진주 대리는 "며칠 사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동료들과 '겨울이 온 것 같네'라며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마침 딱 수타벅스 덕분에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어서 행복해요."라며 텀블러를 양손으로 꼭 쥔 채 웃었다. 커피와 간식을 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며 선선한 가을 공기를 만끽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웃으며 듣던 강태훈 단장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특히 올해 젊은 직원들의 비중이 높아지며 사업단이 한층 더 활기차졌어요. 여러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제 일을 해내는 직원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바로 우리 사업단의 가장 큰 힘이랍니다."라며 전했다.

따뜻한 커피 향이 퍼진 하루. 서로의 열정을 응원하는 마음이 모여 오늘의 수도권수도사업단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달려온 30년의 발자취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이들의 내일을 응원한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수타벅스와 함께한 수도권수도사업단의 즐거운 모습을 만나보세요.

Mini-Interview



음정수 차장

먼 거리의 현장을 누비며 땀 흘리는 직원들이 오늘만큼은 따뜻한 커피와 맛있는 간식으로 휴식을 누리길 바랐어요. 앞으로도 동료들과 함께 한다면 더 멀리 달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소 말로 하지 못했던 마음을 수타벅스로 전할게요. 직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김채순 과장

수타벅스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직원들에게 전했을 때, '정말 온다고?'라며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선물에 기뻐하던 직원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간만에 직원들이 한 자리에 있으니 함께 달려온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글. K-water연구원, 글로벌사업본부 참고자료. 『Water & Tech INSIGHT』(8월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기후변화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재원을 나누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기술과 노력을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기후협력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기후대응체제, 파리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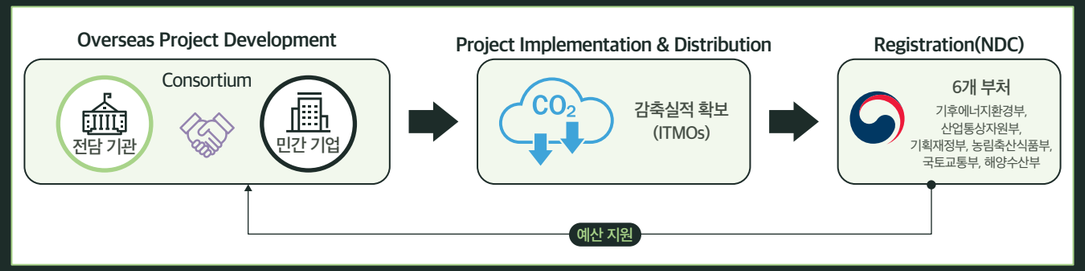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그러나 2020년 협약이 만료될 때까지도 기후변화는 가속화되었고, 이에 따라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한 포괄적 글로벌 협약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각국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과 여건을 고려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자발적 참여 체제를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든 국가가 기후위기를 완화를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마련되었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화력발전의 효율을 높이거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해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방식, 화석연료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배출을 회피하는 방식,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런 감축 방식을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방법이 바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다.

상호보완적 발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국가간 자율적인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파리협정 제6.2조(협력적 접근법, Cooperative Approach)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국가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감축 실적을 상호 이전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모델이다. 선진국은 감축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은 이를 바탕으로 감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양자간의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은 감축 실적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NDC)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기술 이전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경제·환경적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양국 정부간 협정을 체결한 뒤 정부의 공식 승인을 거쳐 사업이 시행된다. 이후 감축 효과를 측정-보고-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감축량을 확정하며, 그 성과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등록을 거쳐 국제적으로 감축실적(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확보된 감축실적은 협정국가 또는 선진국으로 이전되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제감축사업 개요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확장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2.9%에 해당하는 37.5백만tCO₂E을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6개 부처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각 부처별 실행 전담기관을 별도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물·환경 분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발전 분야), 기획재정부(예산·정책·협정 참여), 농림축산식품부(임업 분야), 국토교통부(건물·교통·건설 분야), 해양수산부(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가 부문별 주관기관이며,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는 물 분야의 실행 전담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감축사업은 정부·공공 부문이 주도하고 민간기업이 실행 파트너로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나 감축설비 설치 등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민간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동시에 견인하고, 기후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새로운 협력 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통해 베트남, 몽골, 가봉, 우즈베키스탄 등 9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스리랑카, 가나, 방글라데시 등 4개국과는 가서명을 완료하였다. 필리핀, 세네갈, 콜롬비아 등 3개국과의 협정도 추진 중으로, 글로벌 협력의 폭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물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현황

사업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주관부처), K-water(전담기관)

사업유형

① 댐·하천 등 활용 소수력 및 수상태양광 신규 개발, 재개발
② 도시의 환경난제 분석 및 최적 탄소감축 솔루션 도출, 탄소저감형 도시재생사업

사업 현황

2025년 3개국 8건 사업 추진 중

K-water의 물 분야 국제감축사업 추진 전략
물 관련 재생에너지 분야 중심의
Green(신규개발) + Brown(재개발) + Mega(대형화)
3대 사업모델 정립

Green 신규개발

적지발굴, 타당성 분석을 통한 신규 재생에너지사업 개발
- 미개발 지역 내 신규 재생e 개발
- 청정에너지 공급 및 탄소배출 저감

※ 적용사례 : 캄보디아 다운트리댐 재생e, 라오스 재생e

Brown 재개발

수원국 소유 발전소 중 운휴 또는 노후화된 시설의 재개발
- 기존 노후 시설의 현대화 및 효율 개선
- 발전용량 증대 및 추가 온실가스 감축

※ 적용사례 : 키르기스스탄 Alamedin 1~6호기

Mega 대형화

배출권을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는 거점지역 중심 탄소감축 솔루션 도입
- 도시 인프라 전반의 탄소저감형 재생
- 물-에너지-도시 연계형 통합 감축모델

※ 적용사례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도시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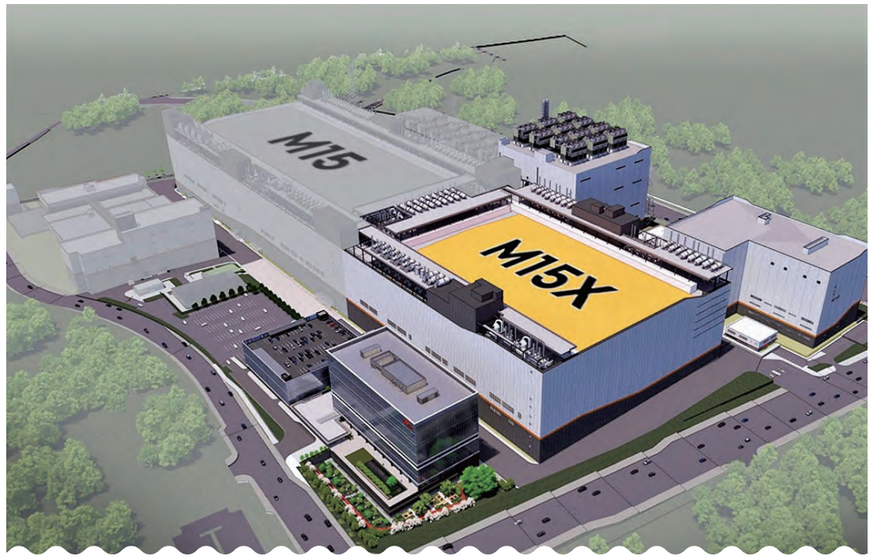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

현행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주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주로 소규모·시범사업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다. 공모로 선정된 다수의 프로젝트가 연 감축량 10만tCO₂E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 관리·행정비용 대비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간 협력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전략적 기획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과 효율화, 탄소포집, 흡수원 조성 등 다양한 감축수단을 패키지화해 개발도상국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감축 솔루션을 제공하는 협력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ODA·MDB 등 국제재원과 연계한 정부 주도의 사업대형화를 통해 실제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감축실적이 인정되는 사업 방법론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확대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파리협정 제6.2조는 국가 간 자율적이고 유연한 감축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나, 사업 성과의 측정과 검증을 위해 여전히 표준화된 방법론 중심의 사업 구조가 권장되고 있다. 특히, 물 분야의 유수율제고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물부족 해소, 에너지 절감 등 기후위기 완화 효과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감축실적 측정·평가 기준이 부재해 사업 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과 감축효과 측정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국가 간 협정 단계부터 사업 방법론에 대한 사전합의를 통해 방법론의 표준화와 공식화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사업대상국인 개발도상국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현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제규범 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보고체계가 미흡하다. 사업 승인 절차나 감축실적 검증을 수행할 전문기관과 인력이 부족해 사업 승인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국의 제도 정비와 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실증사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후테크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전략적 기회인만큼, 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이 긴요하다.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은 기후위기 심화와 디지털 기술 혁신을 계기로 연간 3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9년에는 1.6경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내 유망 기후테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해외 현장에서 실증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면, 국내 기후테크 산업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01

국내 최초 초순수 운영사업 진출

한국수자원공사가 SK하이닉스와 협력해 국내 기술로 생산된 초순수를 공급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 자립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그간 미국·일본 등 해외기업이 주도해온 국내 초순수 시장에 국내기업이 새롭게 진입하는 첫 사례로, 초순수 기술 자립을 위한 정부와 공공 부문의 노력을 입증한 성과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3년 SK하이닉스와 '초순수 국산화 및 민간 물공급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기본협약을 통해 단계적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올해 3월 'SK하이닉스 M15X 초순수 시설 운영관리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국내기업 최초로 초순수 운영사업에 진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사업을 확대해 원수, 정수, 초순수, 재이용수에 이르는 다양한 물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로써 기후변화나 무역 갈등 등 외부 리스크 속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보장해, 반도체 산업이 '물 걱정 없는 생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02

물산업의 주도권 잡기 위한 AI 대전환 타운홀 미팅

지난 9월 29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윤석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First 전략 비전 공유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출범한 AI First 전략기획단의 성과를 점검하고, 각 분야의 다양한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전략기획단은 '60년 경험을 1초로 압축하는 방법'이라는 비전 아래 139개의 도전 과제를 발굴했다. 업무환경의 완전한 혁신, 스스로 학습하고 최적화하는 시설, 개인 경험을 넘어선 집단 지성의 탄생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팅에서는 최신 글로벌 AI 동향과 전환의 골든타임, 물산업 AI 선도 전략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반세기 넘게 축적한 물관리 경험과 전 영역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AI와 연결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정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AI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석대 사장은 "AI 전환은 기후위기와 물재해 대응이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본질적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고, 반세기 넘게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국민의 안전과 미래 경쟁력으로 바꾸는 도전"이라며, "2030년까지 전면적 AI 전환을 달성해 첨단 물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03 미래 물관리 혁신 위한 미래혁신자문위원회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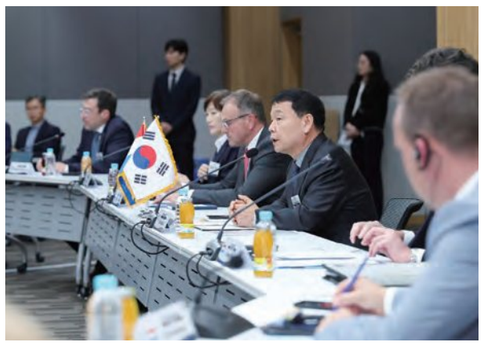


지난 9월 29일 한국수자원공사가 학계·산업계·시민사회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는 '미래혁신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국가 단위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대응해,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모아 혁신과제 도출을 통해 세계 경제 트렌드로 떠오른 물관리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선점하기 위해 출범했다. 동시에 첨단 물산업 혁신으로 기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도 담고 있다.

석재왕 건국대학교 교수를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하여 활동을 시작한 이번 위원회는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자문기구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홍수·가뭄 등 물재해 예방과 AI 기반 스마트 물관리 확대, 물-에너지 융합 사업 확대, 수질·수생태계 복원과 녹조 저감,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04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과 AI 물관리 협력 파트너십 확대



지난 10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을 맞아 AI와 디지털전환 기반 첨단 물관리 기술을 선보이며, 양국 간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확대를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에는 룩셈부르크 산업연합(FEDIL) 소속의 디지털·통신·미디어 분야 주요 기업 대표, 정부·학계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경제사절단 약 20명과 자크 플리스(Jaques Flies)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가 함께 참석했다.

방문단은 한국수자원공사의 AI 정수장과 디지털트윈 기반 물관리종합상황실, 위성 데이터 활용 홍수 예측 모델 등을 직접 확인하며, AI 물관리 전환의 실제 현장을 체감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향후 공동 연구와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05 OpenAI와 AI 물관리 혁신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지난 10월 23일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이 ChatGPT 개발사 OpenAI 크리스 리헤인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와 만나 AI 기반 물관리 혁신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선언한 'AI First 전략'을 공유하며, 60년간 축적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물관리의 예측·대응·운영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AI 기술과 물관리의 융합이 가져올 혁신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축적한 물관리 전문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 분야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을 제안했다. 더불어,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 예측 플랫폼, AI 정수장 글로벌 모델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제시하며 향후 실무 논의를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06 '중앙단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수자원공사가 '2025년도 중앙단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소방청은 매년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체계와 대응 역량을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재난유형별 현황, 운영체계, 재난 대비·대응 우수사례, 인적자원 등 4개 분야를 평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산불·화재 발생 시 소방 용수 긴급 지원, 호우 및 산불 피해지역 댐 용수공급 및 요금감면, 국가 상수도 정보시스템을 통한 소화전 정보 공유 등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도관 무료 세척과 수질 모니터링, 음용 안전 기술 지원 등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을 적극 시행한 점도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물과 빛이 숨 쉬는 동굴
충주 활옥동굴

**광부들의 땀과 노력으로 다져진 공간.
시간이 멈추었던 활옥동굴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찍히며 새로운 이야기가 쌓여가고 있다.
세월의 어둠을 가르고 피어오르는 이야기의
기운을 따라 활옥동굴로 떠나 보자.**

100년의 세월을 품은 동굴

충주 목벌동 인근은 예로부터 '곱돌마을'이라 불렸다. '활석이 생산되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마을 아이들은 광산에서 얻은 활석으로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고 한다. 현재 충주호 안쪽에 자리 잡은 활옥동굴의 본래 이름은 '동양광산'이었다. 1919년 처음 문을 열어 한때 1천 명이 넘는 광부가 활옥, 백옥, 활석을 캐느라 분주한 아시아 최대의 활석광산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값싼 중국산 활석이 수입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수입 활석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70년 가까이 호황을 누리던 광산은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됐고, 적자를 견디지 못한 광산은 결국 폐광했다. 100여 년 가까이 동굴 속 어둠을 밝히던 불빛도 그렇게 사라졌다.

Water Lou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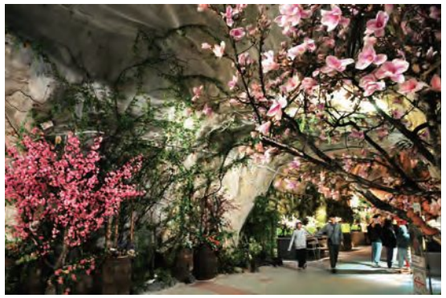
글. 조수빈 **사진.** 박갑순

광산에 다시 사람이 모여든 것은 2019년. '활옥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새단장을 한 이곳에는 활석을 캐던 광부 대신 동굴을 탐험하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활옥동굴은 전체 길이 57km에 달하는 갱도 중 약 2.3km 구간을 정비하여 조성한 체험형 테마파크이며, 옛 광산사업소 사무실은 식당으로, 활석 제분공장은 카페로 바뀌었으며 이밖에 수경재배 빛조형물 전시, 수경재배, 와인 저장고 등 10개가 넘는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동굴'이라 하면 어두컴컴하고 으슥한 분위기를 떠올리기 쉽지만, 활옥동굴은 밝다. 이곳에서 주로 캐던 '활석'은 하얀색 광물로 표면 촉감 또한 비누처럼 부드럽고 매끈하다. 그렇기에 용암동굴이나 석회동굴과 달리 내부가 환하다. '하얀동굴'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 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11~15도 사이를 유지하는 덕분에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도, 추위가 맹렬한 한겨울에도 쾌적하다. 특히 여름에 이곳에 오래 있다 보면 냉기가 느껴지기도 하니 가벼운 겉옷을 하나 챙기는 것이 좋다.

광부의 삶을 탐험하는 길

활옥동굴 입구에는 광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광부들의 치열했던 땀방울과 시대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과거 지하 900m를 45도 경사로 오르내리며 무거운 광물을 운반했던 광산 설비, '권양기'의 흔적도 남아있다. 500마력의











권양기는 광물을 최대 10톤까지 적재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권양기이며, 이밖에도 150마력·300마력 권양기와 광부들이 지하 깊은 곳에 내려가기 위해 사용하던 레일, 사갱 운반차 등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이 공간에서는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 발자취와 광부들의 삶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체험학습 장으로도 손색없다.

채석장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곳곳에는 빛을 이용한 조형물이 있어 신비로움을 더한다. 해초, 조개, 해파리, 돌고래 등 바닷속을 형상화한 조형물들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해양세계를 연출하고 있다.

활옥동굴의 백미는 천연 암반수로 채운 호수를 탐험할 수 있는 '동굴카약'이다. 150m가량의 코스를 따라 노를 젓다 보면 수심 50cm 남짓한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송어와 철갑상어를 만날 수 있다. 벽면 가까이에서 동굴을 감상하는 경험도 색다르다. 이색체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동굴의 서늘한 기온과 청정수질을 활용하여 수경재배 중인 '고추냉이', 동굴의 온도와 습도를 이용해 숙성시킨 '와인' 등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와인은 충주에서 난 사과로 빚어 더욱 달콤하다.

역사의 뒤안길에서 다시 불을 켜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활옥동굴. 과거에서 깨어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활옥동굴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충주 활옥동굴

A 충청북도 충주시 목벌안길 26
H 09:00~18:00(매주 월요일 휴무)
T 0507-1447-0517

글. 이준희 전자신문 기자

호라이즌 유럽, 비상(飛上)하는 K-water



이준희 전자신문 기자

지난 8월 말 오스트리아 빈에서 저녁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우버 택시. 라디오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 '골든'이 흘러나왔습니다. 워낙 전 세계적인 신드롬 한 가운데에 있던 터라 현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K-pop이 크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광고가 흘러간 후에는 블랙핑크의 '뛰어' 그리고는 발매된 지 4년이 지난 BTS의 'Butter'까지 재생됐습니다. 유럽에서 K-pop이 인기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독일어권 국가의 공중파 라디오에서 미국이나 영국 팝송과 대등한 수준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국뽕'이 느껴졌습니다.

8월 25일부터 28일(현지시간)까지 오스트리아 빈 공과대학에서 열린 '2025 한·유럽 과학기술 학술대회(EKC-2025)'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국과 유럽 과학자·엔지니어 900여 명이 오스트리아 빈에 모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죠. 유럽 내 한국의 문화적 위상 못지않게 과학적 위상도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현장 취재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주요국 대표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찾아 본사 연구소장 인터뷰를 성사시키는 것. 또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유럽 과학자들의 기술 성과를 취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행사 첫날 제 눈을 사로잡은 부스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였습니다. K-water는 이번 EKC에 참석해 세계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젝트 차원에서 '수자원위성', '상하수도 수처리' 등 기술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호라이즌 유럽' 예산은 2021~2027년 875억 유로(약 140조 원) 수준에서 2028~2034년 1750억 유로(약 280조 원)으로 100% 증액될 예정입니다. 미국·중국·일본에 앞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된 한국의 과학자들은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스마트도시 등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양자·다자간 국제공동연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K-water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잠재력이 있습니다.

한국,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가 이상기후가 초래한 재해·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water는 유럽연합(EU)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기후테크'를 한국과 유럽 선진국에서 연구개발(R&D)하고, '탄소중립'이란 산업적 성과를 개발도상국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 취재 결과, 이미 K-water는 수자원위성 분야의 경우 위성 기반 물관리 기술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글로벌 연구협력을 통해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K-water가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를 주도해 EU 위성 프로그램의 글로벌 기후변화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예측·분석 기술협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K-water는 미량 오염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하수도 수처리 기술 또한 협업 시너지가 기대되는 EU 국가들과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에게는 호라이즌 유럽뿐 아니라 유레카 등 유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기회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기대해 봐도 좋을 듯합니다. K-water가 60년간 축적한 물관리 노하우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물기술에 대한 연구성과와 산업적 성과를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K-pop이 전 세계 공중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듯 K-water의 물 기술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으로 확대돼 기후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글. 조수빈 그림. 추관소

오래된 전설 속에는 지금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있다. 아들을 위해 끓였던 케리드웬의 물약은
천재적인 시인을 탄생시켰지만, 지혜의 솥에는 동시에 독약이 끓고 있었다.
케리드웬의 신비로운 물약으로 비추어 보는 지혜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혜를 끓이는 여인 케리드웬의 물약

단 세 방울, 천재 시인의 탄생

웨일스의 고대 전설 속에는 한 여인이 등장한다. 이름은 케리드웬(Ceridwen). 북웨일스의 발라 호수 근처에 살던 그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두 사람의 운명은 사뭇 달랐다. 딸 크레르위(Creirwy)는 아름답고 총명했지만, 아들 모프란(Morfran)은 흉측한 외모로 늘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케리드웬은 아들을 위해 '지혜'를 선물하기로 했다.

그는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즉 마법의 가마솥 '아웬(Awen)'을 지니고 있었다. 이 가마솥에 달여 만든 물약을 마시면 지혜와 영감이 샘솟는다고 하여, '아웬'은 오래전부터 신성한 영감의 원천으로 여겨졌다.

케리드웬이 아들을 위해 만든 특별한 물약은 무려 1년하고도 하루를 더 끓여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하여 눈먼 노인 모르다(Morda)와 어린 소년 그위온 바흐(Gwion Bach)에게 가마를 지키게 하며 단 하루도 불을 꺼뜨리지 않고 물약을 휘젓게 했다. 그러나 1년간의 정성은 단 한 순간의 실수로 어그러지고 말았다. 팔팔 끓던 가마에서 물약 세 방울이 그위온의 손가락에 튀었고, 그가 반사적으로 손에 튄 물약을 핥는 순간, 물약에 담긴 모든 지혜와 힘이 그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다.

아들을 위해 바쳤던 지난 1년이 허사가 된 것을 안 케리드웬은 분노했다. 이를 예감한 그위온은 일찍이 도망쳤지만, 마법의 힘을 얻은 두 사람의 추격은 치열했다. 그위온이 토끼로 변하면 케리드웬은 사냥개로, 그위온이 물고기로 변하여 강에 뛰어들면 케리드웬은 수달이 되어 쫓았다. 그위온이 새가 되면 케리드웬은 매가 되었다. 마침내 그위온이 곡식 알갱이로 변하자, 케리드웬은 암탉이 되어 그를 삼켰다. 그러나 물약의 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케리드웬은 그를 품은 채 임신하게 되었고, 몇 달 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인 탈리에신(Taliesin)을 낳았다. 그는 다름 아닌, 그위온의 환생이었다.

독과 약, 지혜의 양면성

웨일스 전설 속 위대한 음유시인, 탈리에신은 그렇게 탄생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나라의 앞날을 예언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신화 속 영웅으로 자리잡았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의 노래에 기뻐했으며, 그의 풍자와 예언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다. 지금까지도 탈리에신은 웨일스 시문학에서 '시인들의 우두머리'라고 불린다. 『브리튼인의 역사(Historia Brittonum)』에서는 명성이 높은 다섯 명의 브리튼 시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여전히 '영감의 화신'으로 남아있다.

다시 앞선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케리드웬의 가마솥에 남아있던 약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가마솥이 남긴 것은 단지 '천재 시인의 탄생'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혜의 물방울이 흩어진 뒤, 그 속에 남아있던 물약은 모조리 독약으로 변해버렸다. 지혜의 물약, 그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였다.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지만, 불빛이 너무 강하면 시야를 잃는 법. 지혜도 마찬가지였다. 세상을 밝히는 동시에,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그래서 케리드웬은 여신이자 마녀로, 영감의 근원이자 경계의 존재로 기억된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가 안고 있는 가마솥 속에 지식과 통찰, 욕망과 인내를 함께 끓이고 있다. 케리드웬의 이야기는 결국,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곳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방울이의 알고리즘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세계 물산업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한 AI 전략

오은 AI추진단장이 알려주는 "지금 왜 AI인가?"

#물과 AI #물산업 패러다임



블로그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를 기억하자

#독도의날 #10월 25일
#독도 관련 여행지



X(트위터)

이게 겨울이지 가을이냐~?
그래도 따뜻한
대추차로 이겨내기!

#방울이의 건강관리 #면역력 증진



페이스북

단풍놀이 가기 전에
잠깐 주목!

#단풍예측지도 #단풍절정시기 #단풍놀이



인스타그램

가람씨~
넵! 넴... 네. 네넹♥

#직장인의 언어 #방울이의 회사생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11월호 이벤트 안내

Vol.692

EVENT 1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후기를 들려 주세요

11월호 사보 또는 웹진을 읽은 후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방법: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 이벤트 경품: 메가박스 2인 패키지(5명)
- 접수 마감일: 11월 20일
- 선물 발송일: 11월 30일

참여하기

EVENT 2



지구에서 정화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물은 1%밖에 안된다?

바다, 호수, 강 등 지구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면 물 걱정은 할 일 없겠네!' 싶지만 정작 우리가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물은 아주 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사실일까?

- STEP 1: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후 채널 추가
- STEP 2: 1:1채팅방 클릭
- STEP 3: 정답 및 의견
  (정답 및 의견/이름/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 이벤트 경품: 스타벅스 간편한 한끼 세트(커피+베이글)
- 접수 마감일: 11월 25일
- 선물 발송일: 11월 30일

참여하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

10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사보에 대한 소중한 의견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한(0452)

강릉의 기사를 보고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후변화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현실이라는 게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물은 곧 건강이고, 생계이며, 지역의 존속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김○일(2112)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 저 또한 답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답과 제 답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네요.



김○자(1930)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를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특히 여러 번 경주 여행을 갔었는데도 계림, 교촌마을은 가보지 못했는데 그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가봐야겠어요.



방○사(0725)

AI와 빅데이터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보이지 않던 곳에서도 여러 기술과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니 물 한 잔을 마셔도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이○길(7498)

해외사회공헌활동 기사를 통해 지구촌 이웃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 흐뭇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묵묵하게 봉하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K-water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YES or NO 이벤트

이벤트 경품 커피+베이글 기프티콘 10명

바닷물도 100℃가 되면 끓는다? 정답은 NO!

순수한 물은 100℃에서 끓지만, 나트륨, 염소 등 염분이 녹아있는 바닷물의 경우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이 높아 약 100.6℃에 끓는다.

김○섭(5754) 김○우(8090) 안○주(0844) 조○원(6499)
김○옥(1688) 박○미(1839) 오○원(0468)
김○우(7534) 안○수(3966) 이○유(6048)

#방울이 옷 입히기 이벤트

이벤트 경품 업사이클링 키트 5명

양○주(8294)
장○관(3483)
최○옥(7752)
최○혜(6079)
현○슬(1287)



※11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00으로 전화주세요.

방울이 옷 입히기

여러분의 취향대로 방울이를 꾸며보세요!

방울이의 변신은 무죄!
멋있게 변신한 방울이 모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026 K-water 방울이 캘린더를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QR코드로 제출
접수 마감 11월 20일
선물 발송 11월 30일

응모하기

경품
2026 K-water 방울이 캘린더
(5명)



웹진 바로가기

방울이 옷 입히기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KIWW2025
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경험과 기술의 공유를 통한 미래 스마트 워터 구축
물의 미래를 함께 여는 스마트 혁신

2025. 11. 12 수 - 15 토

대구 EXCO

주최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구광역시 | K water 한국환경공단

주관 한국물포럼